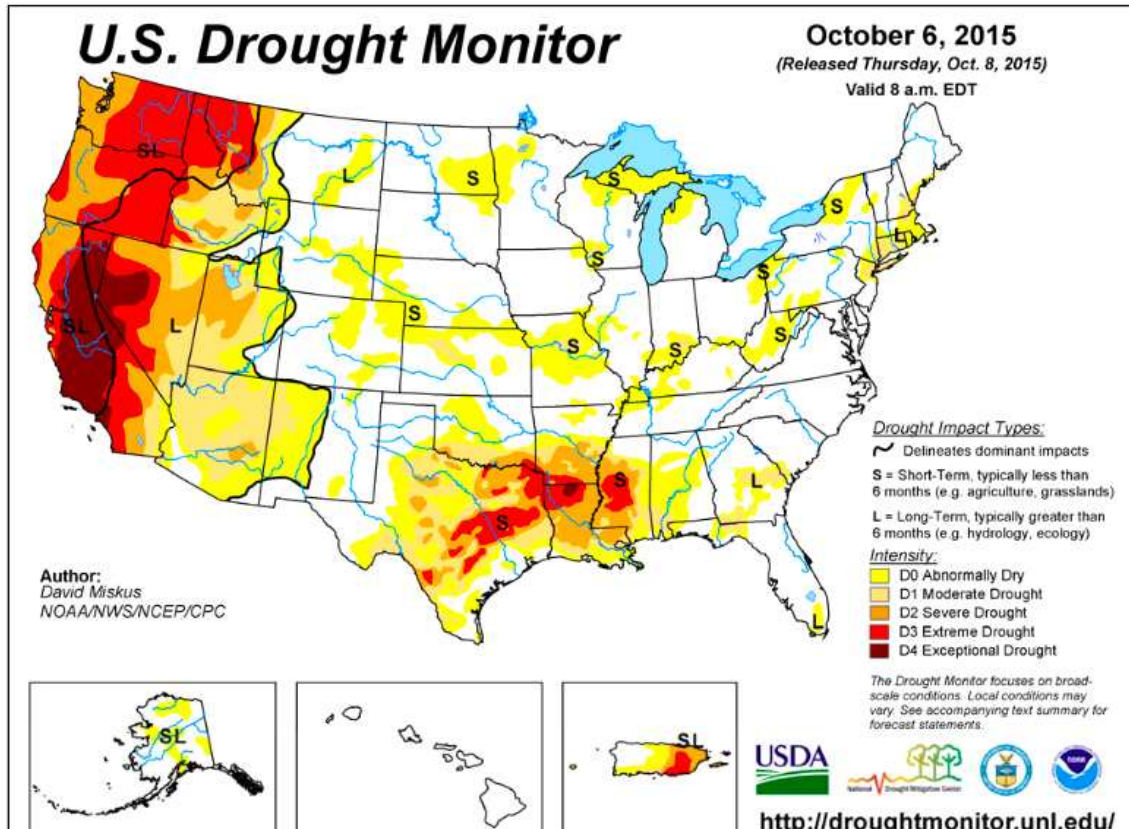


10월 1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41)

□ 미국 기후 현황(10/4~10/10)



캐롤라이나 일대에는 주초반에 비가 집중되었다가 그쳤지만, 강물의 수위는 주 후반까지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 워싱턴 서부, 뉴 멕시코 남동부, 텍사스 서부 일대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남서부 일대에도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렸다. 하지만 대평원과 중서부, 중남부 등 많은 지역에서는 맑고 건조한 날씨 덕분에 여름작물의 수확작업과 겨울 밀 파종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오클라오마 남부와 텍사스 동부, 미시시피 중부 일대에는 지난 3~4개월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으며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북부와 북서부 내륙 일부에는 비가 조금 내렸다. 북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5~10°F 이상 높았다.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로키산맥 남부와 뉴 잉글랜드 북부 일부에서만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다. 대평원에서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다코타 북부에서는 10월 10일 낮 최고기온이 90°F 이상 올라가기도 했다.

## □ 농업 현황 요약(10/5~10/11)

미국 전역에서 지난 한주간 평년 수준의 비가 내렸고, 캐롤라이나 남부에서만 예외적으로 비가 많이 내려 수확작업이 지연되었다. 옥수수 지대지역 전역에서는 지난 한주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수확작업이 한층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미 전역에서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태평양 연안 북서부, 로키산맥 북부, 대평원 북부에서는 평년보다 최고 10°F 이상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 ■ 옥수수

10월 11일 기준 전국 옥수수 재배지의 94%에 이르는 지역에서 옥수수가 충분히 여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보다는 8%p 앞선 수준이고, 직전 5년 평균보다도 3%p 앞선 상황이다. 전국 평균 수확량은 4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동기보다는 19%p 앞선 수준이고, 직전 5년 평균보다는 약간 뒤쳐진 수준이다. 일리노이와 미네소타에서는 지난 한주간 수확률이 각각 21%p, 20%p 증가했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치이고,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에는 6%p 낮은 수준이다.

### ■ 겨울밀

10월 11일 기준 전국 파종률은 64%를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2%p 뒤쳐진 상황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2%p 뒤쳐진 상황이다. 인디애나, 캔사스, 미시간, 오하이오, 오레곤에서는 지난 한주간 파종률이 20%p 이상 증가했다. 지난 주말 기준 발아율은 33%이며,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8%p 뒤쳐진 상황이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3%p 낮은 상황이다.

### ■ 면화

10월 11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면화송이가 열린 비율은 8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13%p 앞선 상황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약간 앞선 상황이다. 같은 기간 기준 면화의 수확률은 22%이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약간 앞서지만 5년 평균에 비해서는 3%p 뒤쳐진 수준이다. 조지아주의 수확률은 11%로, 지난주에 비해 3%p 증가한 것이며,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8%p 뒤쳐진 수준이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47%가 매우 좋은 생육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1%p 하락한 수준이며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다.

### ■ 쌀

10월 11일 기준 전국 수확율은 88%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8%p 앞서고, 직전 5개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8%p 앞선 수준이다. 지난 한주간 캘리포니아에서는 쌀 수확률이 25%p 증가해 이 지역 수확률은 65%를 기록하고 있다.



## □ 세계 기후 현황(10/4~10/10)

■ 유럽: 대서양과 지중해에서 발생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주요 곡창지대에 비가 내렸고, 북동부 일대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지역에 따라 10~80mm의 비가 내렸고, 겨울밀 파종작업을 앞두고 저수지의 저수량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10~50mm의 비가 내렸다. 이탈리아의 겨울밀 재배지역에서는 10~80mm의 비가 내렸지만, 이 일대의 파종 일자는 11월 첫 주로 예정되어 있어 피해는 없었다. 발칸반도 일대의 겨울밀 재배지역에서도 5~40mm 정도의 가벼운 비가 내렸다. 발틱 연안 국가들과 폴란드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 유채 파종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북동부 일대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기도 했다.

■ 구소련(서부): 많은 지역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작물 관리에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주부터 기온이 영하 2~9°C까지 내려가는 등 기온이 많이 낮아졌지만, 차가운 저기압 전선 일대에서조차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남부와 우크라이나 동부 일대에서는 지난 90일 동안 비가 평년 수준보다 25~50% 정도밖에 내리지 않아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이같은 날씨는 여름작물의 수확작업을 진행하기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겨울작물의 수확전망을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다. Volga 지구에서는 이같은 가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올해 첫눈이 내렸고(적설량은 5~10cm 내외), 이 때문에 농작업이 일부 지연되기도 했다.

■ 동아시아: 태풍 Mujigae의 영향으로 중국 남부에는 주초반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쌀 재배지 일대에는 강풍 피해도 발생했다. Mujigae는 지난 한주 동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세력을 형성해서 해안가에 상륙했으며, 10월 4일 6시간 동안에는 중심부 최고 풍속이 95~115노트까지 기록하는 등 상당히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내륙지역에는 지역에 따라 50mm에서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번 태풍으로 Yangtz협곡 일대에서는 쌀 수확작업이 지연되었고, 북부 대평원 일대에서도 옥수수 등의 수확작업이 지연되었다. 반면, 중국 북동부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 때문에 옥수수 수확작업이 지연되었다. 그밖의 일본과 한반도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확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호주: 주요 밀 재배지 일대에서는 4주 연속으로 비가 내리지 않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서호주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아 밀과 보리, 캐놀라 성장이 지연되고 있고 수확 전망도 한층 어두워진 상태이다. 낮 최고기온은 30°C 초반까지 올라가고 있으며, 평년보다 2~4°C 정도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다. 남동부 일대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치솟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작물의 수확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지역에서도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밀은 filling stage에 진입했다. 주요 여름작물 재배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1~4°C 높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낮 최고기온은 20~30°C 중반을 오르내리고 있다.

■ 아르헨티나: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 가운데 기온이 평년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San Luis 동부에서부터 Buenos Aires 북부, La Pampa와 Cordoba 등에서는 10mm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반면, Buenos Aires 남부에서는 지난 한주간 비가 내리지 않아 건조한 상황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2~3°C 정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북동부에서는 비가 내렸고, Corrientes 일대에는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동부의 면화 재배지역인 Santa Fe, Formosa 등에서는 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Cordoba 북부와 Salta, Formosa 남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10월 8일 기준 해바라기의 파종률은 22%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와 비교했을 때는 약간 낮은 상황이다.

■ 브라질: 주요 밀 재배지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Rio Grande do Sul에서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Sao Paulo 서부에서도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옥수수과 대두, 사탕수수 등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었지만 이로 인해 농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브라질 정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5일 기준 Parana의 밀 수확률은 67%로 나타났고, Rio Grande do Sul에서는 밀이 filling stage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Minas Gerais, Sao Paulo 동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보다 북쪽의 Mato Grosso 일대는 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그밖의 북동부 지역에서는 가벼운 소나기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작업이 잠시 중단되었다. 브라질 전역에서의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2~4°C 정도 높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0°C까지 오르기도 했다. 북동부 해안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비가 내렸다.